**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행 17:10-12>**

**10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뢰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11 베뢰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12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메시지: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마침내 들은 말씀에 자신을 복종시킬 때, 우리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질문: 매일의 삶 속에서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 수 있을까요?

1.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2.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복종시키십시오.

사랑하는 꼬빌리시 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아시다시피 지난 주간에는 우리 교회 부흥 집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목사님을 통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은혜 주심에 감사 드립니다. 여러분도 은혜 많이 받으셨어요? “부흥회 때 정말 은혜를 받았는지는 그 이후의 삶을 보면 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번 부흥회 때 저희 청년부에 임이름 자매가, 앞에 앉은 죄로, 강사 목사님의 타겟이 되었죠? 성경책이 너무 깨끗하다는 이유로 굴욕을 좀 당했습니다. 지난 주 청년부 모임 때 제가 소감을 물어봤더니, 본인은 억울하다고 하더군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에 어찌 더러운 것을 묻힐 수 있느냐”라며, ‘성경청결론’을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어쨌든 본인은 괜찮다, 이번에 은혜 많이 받았다”고 담담히 자신의 소회를 밝혔습니다. 그런 일 당하면 상처받고 교회 안 오는 분도 있는데, 참 좋은 성격을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본인 말대로 이번에 정말 은혜를 받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앞으로 성경책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잘 아시듯,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너무도 자주 잊고 살지요. 부흥회를 통해 우리는 그 은혜 안에 다시금 깊이 잠깁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새롭게 결단합니다. 그렇다면 부흥회가 끝난 지금, 이제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헌신을 끊임없이 ‘자가발전’ 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 수 있을까요?

첫째로,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뢰아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번째 전도여행 중에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 했지만, 성령께서는 그를 마게도냐, 곧 이 유럽 지역으로 이끄십니다. 마게도냐에서 그가 처음으로 들른 곳이 빌립보, 그 다음이 데살로니가, 그리고 세 번째로 들르게 되는 곳이 베뢰아였습니다. 하지만 이 마게도냐에서의 복음전도 사역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빌립보에서는 많이 얻어 맞은 후 감옥에 갖혀야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는 그가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자 이를 시기한 유대인들이 저자의 불량배들을 동원해 그를 괴롭혔습니다. 결국 바울과 실라는 밤중에 몰래 데살로니가를 빠져나와 베뢰아로 향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이르게 된 베뢰아에서 바울은 또다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성경을 강론하며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베뢰아 사람들의 태도는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본문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베뢰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실 개역개정판 성경에 “더 너그러워서”라고 번역된 부분을 예전 개역한글판 성경에는 “더 신사적이어서”, 공동번역에는 “마음이 트인 사람들이어서”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다 비슷한 의미인데, 요점은 그들이 편견을 내려놓고 열린 마음으로 바울의 메시지를 들었다는 점입니다. 바울 일행에 대한 소문이 이미 베뢰아에도 전해진 상태였는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다만 6절에서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바울 일행을 향해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렀다”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베뢰아 사람들이 이미 바울의 소문을 들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베뢰아 사람들은 아주 독특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에 대한 간절함을 준비시켜 놓은 사람들, 다시 말해서 자신들의 편견을 일단 내려놓을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음성을 간절히 기다렸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진정 사모하십니까? 좀 이상하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고, 귀찮아하는 사람도 있고, 의식적으로 거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원하는 소리만 취사선택하여 들으려는 사람도 꽤 많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는 노력은 기울이지 않으면서, 그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그리스도인도 적지 않습니다.

최근에 저는 제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별로 사모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문득 깨닫고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언제나 제게 가장 힘든 일은, 내가 준비하고 있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확신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음성인가, 아니면 나의 인간적인 말일 뿐인가? 그 주 주일에 설교가 있으면, 한 주 내내 저는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지며 끙끙 앓아야 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고통이 설교자라면 마땅히 감수해야 할 자랑스런 숙명 같은 것이라고 생각했고,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최근에 새롭게 깨닫게 된 사실은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저의 이 간절함이 설교를 준비하는 그 한주에만 국한되곤 한다는 부끄러운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지요? 성도들을 향한 당신의 마음과 뜻을 깨닫는 일이 왜 이렇게 힘들어야만 하지요? 이런 질문을 속으로 되내고 있는데, 갑자기 한 가지 생각이 제 머리를 쳤습니다. “그것은 네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교역자로서 이것은 참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여러분께 용기를 내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것이 그 순간 제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너무나 정확한 진단이었습니다. 성도들의 입장에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에 게을렀기 때문에,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가 닿기가, 그만큼 어려웠던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 어떻게 하면 우리는 베뢰아 사람들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좀 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께 권면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교역자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간절히 기다리게 되고, 마침내 그 음성을 따라 성도들을 섬길 수 있게 됩니다. 구역장이 구역원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간절히 기다리게 되고, 마침내 그 음성을 따라 구역원들을 섬길 수 있습니다. 교회학교 교사가 반 아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간절히 기다리게 되고, 마침내 그 음성을 따라 아이들을 섬길 수 있습니다.

기독청년이라면 자신이 앞으로 살아갈 인생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내려놓아야 할 지, 어디에 속하여 어디를 바라봐야 할 지, 하나님의 음성을 간절히 기다리게 되고, 그 음성을 따라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교회의 중직자나 어른이라면, 자신이 공동체에 미칠 선한 영향력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무엇을 말해야 하고 무엇을 말하지 말아야 하는지, 언제 나서야 하고 언제 나서지 말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간절히 기다리게 되고, 그 음성을 따라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섬길 수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교회 공동체에만 적용되는 원리는 아닙니다. 자식을 키우는 부모는 그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그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분의 음성을 간절히 기다리게 되고, 마침내 그 음성을 따라 자녀를 바르게 섬길 수 있습니다. 직장인이라면 자신의 일터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자신이 하는 일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분의 음성을 간절히 기다리게 되고, 그 음성을 따라서 직장에서 보냄 받은 선교사로서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합니다.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든 안 하든 결국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것이고, 그것은 언제나 최선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은 매우 신앙적인 말인 것 같지만, 잘 들여다 보면, 그 안에 기도에 관한 심각한 오류를 품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해 내 뜻을 관철하는데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기도는 요지부동의 벽을 향해 쏟아내는 공허한 넋두리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를 이어주는 영적인 끈이며, 하나님과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는 자리입니다. 때로 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기도를 통해 바뀌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갈망은 극대화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도를 통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지고, 우리의 뜻은 하나님의 뜻으로 대치됩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기서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표현에 주목하십시오. 성령은 어떻게 기도해야 할 지 모르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끌어 가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또한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그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이처럼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준비하는 기도요,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기도입니다. 진정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십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십시오. 나 자신과 주위 형제자매들을 위해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복종시키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바울의 메시지를 들은 베뢰아 사람들은, 이어서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고,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전한 메시지는 무엇이었는가? 우리가 함께 읽지 않은 사도행전 17장 3절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 보실까요?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바울은 구약성경에 기록된 메시야에 관한 예언들이 예수 안에서 온전히 성취되었음을 입증하면서, 예수가 곧 메시야임을 증언했습니다. 베뢰아의 유대인들에게 구약의 율법은 익숙한 것이었지만, 바울을 통해 전해진 복음의 메시지는 아주 낯선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이려면 심지어 자신들이 기존에 갖고 있던 신념의 상당 부분을 수정하고 폐기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곤혹스러운 일인지는 동일한 상황에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보인 반응을 통해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그들은 바울이 베뢰아로 넘어간 것을 알고는 거기까지 따라와 한바탕 소동을 벌이고 돌아갑니다.

하지만 베뢰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매우 수용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들은 이후의 태도 역시 참 훌륭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에 의해 들려진 그 새로운 메시지가 ‘참으로 그러한지’, 즉 그것이 실제 성경의 내용에 부합하는지 알고자 성경을 연구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들이 이 작업을 ‘날마다’ 했다고 기록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니, 왜 그래야 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들은 이 예수의 복음이 그만큼 충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메시아에 대해 그들이 기존에 갖고 있던 지식과 그것이 상충하기조차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기대했고 여전히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는 강력한 카리스마로 선민 이스라엘의 중흥을 이루는 위대한 민족 지도자 혹은 선지자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전해 들은 예수는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나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다 죄인들을 위해 대신 십자가에 못박혀 죽은 사람, 그러나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고 올라가신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메시아 예수의 수난과 부활이 이미 구약성경에 예언되어 있었음을 직접 관련 말씀들을 언급하며 설명했던 것이고, 이는 이후 베뢰아의 유대인들로 하여금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동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매일의 성경 연구를 통해 그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리라고 결론 내렸을 때, 그 자연스런 결과로 예수를 믿기로 결단했던 것입니다.

이 자리의 여러분 중 대다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베뢰아 사람들의 이야기는 이미 여러분이 겪은 일이기에 나와 상관없는 얘기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있지만 그분에 대해 다 알고 있다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살고 있지만, 그분을 온전히 따르고 있다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이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비춰보고 회개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지식이 베뢰아 사람들에게 없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들은 메시아에 대한 불완전한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불완전한 지식이 보다 완전한 지식으로 대치되고, 그것이 구원을 위한 믿음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은, 말씀에 반응하는 그들의 바른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함께 주목하기 원하는 것은 들은 말씀에 반응하는 베뢰아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바울의 메시지를 듣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상고하는 베뢰아 사람들의 모습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읽은 후에, 과연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 좋은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기도를 크게 하거나 하나님 얘기를 많이 한다고 신앙이 좋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가진 돈과 시간, 그리고 힘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가 어디에 귀를 기울이고,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어디를 바라보며 사는지,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그가 어떻게 대하는지가 오히려 그의 신앙을 더 정확히 보여줍니다. 한 마디로, 그의 삶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와 닮아 있느냐가 그의 신앙을 말해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신앙의 지향점은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살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평생을 믿어도 신앙이 늘 제자리인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신앙이 그의 삶의 구체적인 영역 속으로 스며들지 못해서입니다. 이 신앙의 성숙은 시간이 흐른다고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말씀 앞에서 나를 비춰보고, 그 말씀에 나를 쳐 복종시키려는 치열한 몸부림 속에서, 우리의 신앙은 조금씩 성숙해가는 것입니다.

요즘 저는 청년들과 함께 요나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요나서는 하나님께서 속 좁고 흠 많은 당신의 종을 어떻게 빚어가시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어느날 선지자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죄악으로 가득찬 성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북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 원수 나라가 잘 되는 꼴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니느웨와 정반대 방향에 있는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꼴을 그냥 두고 보시지 않습니다. 큰 풍랑을 일으키셔서 요나가 탄 배가 거의 파선 직전까지 가게 하십니다. 결국 제비에 뽑혀서 요나는 바다에 던져집니다. 바닷속에서 거의 죽게 되었을 때 요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살려주시면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 순종하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보내어 그를 삼키게 하십니다. 그리고 요나에게 다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이후 요나는 적어도 사흘은 꼬박 다녀야 다 돌 수 있는 큰 성읍 니느웨에서, 고작 하루 동안만 억지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 일입니까? 그 성의 없는 메시지를 듣고도 그 악독한 니느웨 백성이 회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요나는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내 이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악인일지라도 회개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자비하신 분인 거 내가 이미 알았고, 그래서 안 올려고 한 겁니다. 이 사람들 구원하고 싶으면 그냥 당신이 알아서 하시면 되지, 왜 저를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이렇게 살 바엔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그러면서 성읍 동편의 박넝쿨 그늘에 앉아서 그 성읍이 어떻게 되나 지켜봅니다.

그 박넝쿨 그늘은 하나님이 요나를 위해 미리 예비해 놓으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튿날 새벽 하나님은 벌레를 보내셔서 이번엔 그 박넝쿨을 갉아 먹게 하십니다. 자기가 좋아하던 그늘을 잃어버린 요나는 다시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 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십이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 요나서의 내용은 우리에게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또한 내 마음의 크기와 하나님의 마음의 크기가 다르다는 것도 알게 해 줍니다. 요나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실 만큼 우리에게 무관심하시지 않습니다. 요나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거나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당신의 깊고 온전한 뜻을 보이시며, 우리를 당신의 파트너로 아름답게 빚어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잘 들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무엇보다 귀하게 여기는 신명기 6장의 쉐마 말씀은 “이스라엘아 들으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과연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마다 그 말미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덧붙이셨습니다. 과연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귀가 있습니까?

히브리서 3장 15절은 말씀합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야고보서 1장 21절에서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만일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있다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겸손히 경청하십시오. 말씀을 들은 후에는 언제나, 그 말씀이 정말 성경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하십시오. 만약 그렇다면 그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삶을 진득하니 비춰보십시오.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이 여러분이 기존에 갖고 있던 신념이나 삶의 방식과 충돌한다면, 그때는 여러분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십시오. 그것이 죽는 길 같으나 궁극적으로 사는 길임을 믿으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눅 9:24).”

특별히 저는 이 시간 우리 청년들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경험을 통해 형성되는 어떤 신념이나 처세술이 여러분 머리속에서 하나의 철옹성으로 굳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 속에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십시오! 만약 그 예수님에 대해 충분히 안 뒤에도, 그분이 여러분 마음을 온전히 사로잡지 못한다면, 그때는 미련없이 교회를 떠나셔도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보지 못한 채, 귀한 젊음의 시간을 흘려 보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앞에서 걸려 넘어지든지, 그 앞에 꿇어 엎드리든지 둘 중 하나여야 합니다. 절대로 예수님을 피해가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더 알고 더 따르려는 몸부림을 결코 중단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여러분 인생의 중심에 놓으십시오. 그분이 여러분 인생에 질문이 되고 또한 답이 되게 하십시오.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그분께 온전히 복종하십시오.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결코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베뢰아 사람들처럼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꼬빌리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태도로 듣고 있는지 이 시간 점검해 보십시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참으로 많은 소리들이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하려고 경쟁하는 시대입니다. 이 속에서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시대는 참으로 많은 삶의 옵션들이 우리의 온전한 복종과 헌신을 제약하는 시대입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 수 있겠습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갈함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라고 했던 아모스 선지자의 외침이, 모든 것이 풍족한 이 시대에 오히려 더 가슴 깊이 와 닿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흥회가 끝났지만 우리의 신앙과 삶의 부흥은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이제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헌신을 끊임없이 자가발전 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간절히 사모하고, 신실하신 그 말씀에 온전히 복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베뢰아 사람들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게 이루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